

예산 7천억 시대 오나?

남원시, 일반회계 6718억원·특별회계 476억원 편성

남원시가 2019년도 예산안을 7,194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13억원이 늘어난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6,718억원, 특별회계 476억원으로, 오는 12월 14일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분야 1,638억원, 사회복지 분야 1,50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3억원, 문화체육 관광분야 541억원, 환경보호분야 3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6억원 등을 편성했다.

남원시는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역동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남원시 람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인 일자리사업, 청년 취업 혁신가 인턴 지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공공청사 관리 및 안전 서비스 일자리 지원, 교육·보건·기술분야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문화체육관광 사업으로 전통가

를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1등으로 육성하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급압공원 조성, 북남원 IC 원도심 연결도로개설사업,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농로·옹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비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민선 7기로 도약하고자 최대 규모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균형적인 하수도 서비스 실현

국비 49억원 투입·덕치 일종지구·물우·신촌마을 등

임실군이 주민들의 균형적인 하수도 공급 서비스 실현에 발 벗고 나선다.

22일 군에 따르면 덕치면 일종과 물우, 신촌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2020년 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일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유역을 들어가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덕치면 일종, 물우, 신촌마을

일원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65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7.5km를 설치하여 183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가장 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아 미생물의 자정작용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 분해·침전·분리한 후 깨끗한 물만 방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마을인근에 있는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인 처천 수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되지 않은 지역 도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생활하수에 따른 하천오염 등의 주민 불편을 줄이고, 균형적인 하수도 보급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공 예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더 살기좋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콩 종자 개발 순창군·서울대 '맞손' | 종자산업 육성 MOU

순창군이 순창의 새로운 콩 종자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을 맞잡는다.

군은 22일 순창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원장 이석하, 이하 연구원)과 종자산업 육성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황승주 순창군수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석하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두 기관은 순창군내 지역 농업인과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오는 2021년까지 기존의

대원콩 보다 수량과 품질이 우수하며 농기계 수확이 용이한 순창군의 고유 콩 품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순창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농업 기술 및 연구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상호 협력 방안도 추진해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로 개발된 콩 품종은 종자센터에서 종자를 증식해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석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가 가진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순창군이 가진 뛰어난 농업 생산 기반을 결합해 새로운 농촌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두 기관이 앞으로 관학협력을 통해 신품종 개발의 성과를 이룬다면 장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브랜드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내 종자육종 연구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품종 실증재배와 1,200종의 교배 실험을 추진하는 등 종자연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K-스포츠노믹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스포노믹스 새 모델 만든다'

남원시 K-스포츠노믹스 대상 문체부 장관상

남원시가 지난 21일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2회 K-스포츠노믹스 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포츠, 경제와 하나되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 남원시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지자체 스포노믹스 새 모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황의훈 남원시 총무국장이 20분간 시의 체육에 대한 투자 및 관심도를 설명해 참석한 정관계 인사 및 기업 CEO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동안 남원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26개대회 개최에서 2018년 43개 대회를 개최하는 양적 성장과 함께 참가자수도 37,000여명에서 50,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도 97억에서 150억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례의 지리산 고지대 자연 자원에 고원훈련장 시설을 이용하여 중장거리 육상 전지훈련, 유소년 축구 동계훈련 등 전지훈련에 따른 지역경제 창출효과도 2014년 15억원에서 2018년 35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창출효과를 내었다. 또한 남원시가 국내 유일의 국제 롤러대회 및 검도대회 개최, 바둑을 통한 훈양의 세계화, 그리고 중국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한 중국 관광객의 유치 등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스포츠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 남원의 위상을 높여 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의료원, 치매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 복지부장관상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치매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남원의료원의 이번 표창은 치매환자 연계체계 구축, 치매예방교육 시행, 치매증상자 및 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원, 순창, 구례 지역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소와 조기치매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내 치매증상 환자의 조기 발견에 중추적 역할 등을 수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지역 내 치매질환의 조기발견, 예방, 증상이환 및 악화예방을 위한 진료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서, 수렵총기 안전관리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에서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년과 달리 수렵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는 수렵지 관할 지정 파출소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또한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수렵 기간은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순창경찰은 수렵이 시작된 지난 8~9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렵 종료일 까지 총기 안전관리 등 수렵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 서장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주민들은 수렵 지역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한 수렵인은 총기 안전관리 수칙과 수렵장에서의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성료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집행부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 및 강령을 끝으로 지난 9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22일 마무리했다.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장 관리실태를 살펴며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펼쳤다.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할 것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의회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번을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담자 다음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